

## 솔루션 개요

# 버티카와 퓨어스토리지를 통한 분석 현대화

퓨어스토리지와 버티카(Vertica) 이온 모드(Eon Mode)를 통해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최신 분석 플랫폼으로 전환하세요.

데이터 양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기업들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스토리지 리소스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비효율적인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접근법으로 이를 해결하여, 새로 생성되고 확장되는 데이터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현대적 데이터 아키텍처로의 전환

아키텍처에 관한 두 가지 변화로 인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현대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변화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변화는 컴퓨팅과 스토리지 간의 분리(disaggregation)로, 다수의 고립된 워크로드에 대하여 단일 리소스 풀을 제공해 더욱 효율적인 스토리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른 솔루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제어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온프레미스 옵션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버티카 고급 분석 플랫폼(Vertica Advanced Analytics Platform)은 컬럼 지향의 (column-oriented)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오늘 날의 까다로운 분석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버티카에서 이온 모드를 추가한 것은 분리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가변적인 워크로드와 고립된 워크로드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파일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인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는 분리된 스토리지 리소스를 기반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성능이 높은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의 타임-투-인사이트(TTI, Time to Insight)를 가속화합니다. 퓨어스토리지용 버티카 이온 모드는 이러한 역할을 기반으로 업계 최초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한 분석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분석에 현대적 데이터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처리량과 첫번째 바이트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TTFB, Time to First Byte)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타임-투-인사이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프레미스 형태로 높은 속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배치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지를 확장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통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IT 관리자는 플래시블레이드의 무중단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단일 스토리지 플랫폼 상에서 지원하여 사일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인사이트 가속화

- ETL과 쿼리 성능의 속도 향상
- 선형적 성능을 높이고 수십억의 오브젝트까지 스케일업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브젝트 지원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리스크 경감



### IT 생산성 향상

- 단일 세트의 데이터 인프라를 여러 부서의 워크로드에 공유
- 무중단: 유지보수 중에도 100%의 성능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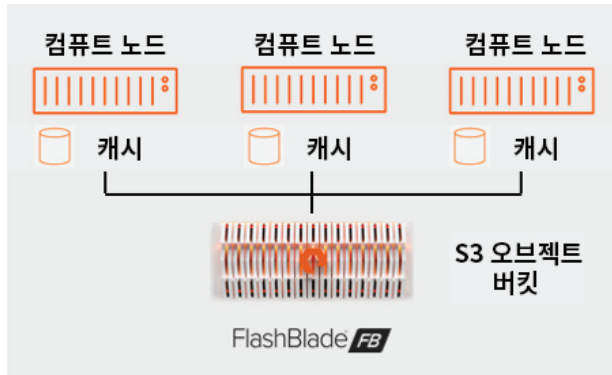


그림 1.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버티카의 이온 모드는 분리된 컴퓨터를 퓨어스토리지의 빠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 취합합니다.

## 새로운 선택

퓨어스토리지용 버티카 이온 모드는 기업의 워크로드를 역동적으로 관리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이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최적화 아키텍처의 역량과 이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또한, 서비스형 퓨어(Pure as-a-service)를 위해선 클라우드 최적화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경제학이 모두 동원되어야 합니다. 퓨어스토리지와 버티카 이온 모드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취합해 동일한 스토리지 인프라 내에서 ETL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니즈와 활용 사례에 대하여 워크로드를 분리할 수 있어, 데이터베이스 복제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 버티카의 이온 모드는 버티카의 엔터프라이즈 모드 대비 스토리지 공간을 대폭 절감합니다
- 더 많은 유저가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필요한 동시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테라바이트(TB)급에서 페타바이트급(PB)으로 늘어날 때에도 탄력적으로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업무나 가변적인 워크로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온디맨드 형태로 컴퓨터 스케일을 업/다운 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보다는 핫 데이터(hot data)에 맞게 컴퓨터 리소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브젝트 아키텍처를 온프레미스 형태로 배치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따르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퍼블릭 클라우드 풋프린트를 확장하기 전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위하여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배치에 동일한 테크놀로지 스택(technology sta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티카와 퓨어스토리지를 통해 기업은 현대적 분석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의 방대한 양과 빠른 처리 속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던 상관없이 데이터로부터 더욱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 [플래시블레이드 데이터 시트](#) 다운로드